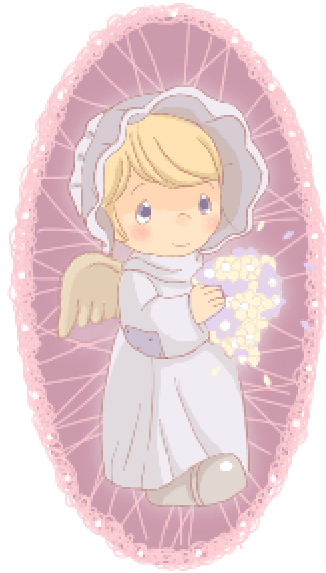


나뭇꾼과 선녀일까요,  
아니면  
나무꾼과 선녀일까요?



*Congratulations!*

다솜 한국학교 교장  
최미영

## 차례

1.	문제 풀이.....	3
2.	서언.....	3
3.	‘자장면/짜장면, 짬뽕/잠뽕, 게놈/지놈, 퍼센트/프로’ 어떤 것이 맞춤법에 맞는 말일까요?.....	4
4.	사이시옷의 표기법은?.....	5
5.	모음조화는 어디로?.....	5
6.	설것이/설거지, 아무튼/아뭇든, 어떠튼/어떻든, 얹히고 얹히다/얹히고 설키다, 반드시/반듯이 어느 것이 맞을까요?.....	6
7.	‘전화할께/ 전화할게, 내가 질소냐?/질쏘냐?’ 의 경우에는는? .....	6
8.	기타 맞춤법은 어떤지요?.....	6
9.	글을 마치며.....	7
10.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 웹에서 발견한 시.....	7

\*\*\* 이 글은 언 전에 산호제 한인 침례교회 편집팀과 함께 한글 맞춤법에 관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서입니다, 맞춤법은 언제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합니다,

## 1. 문제 풀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전에 다음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 답일까요?

- ❖ 자장면 ( ) 짜장면 ( )
- ❖ 전셋집( ) 전세집( )
- ❖ 나무꾼( )나뭇꾼( )
- ❖ 내가 질쏘냐?( )내가 질소냐? ( )
- ❖ 전화할게,( )전화할께,( )
- ❖ 설거지( )설것이( )
- ❖ 놀라워( ) 놀라와( )
- ❖ 무 ( ) 무우( )
- ❖ 돌 ( ) 뚝 ( )
- ❖ 수평아리( )숫병아리( )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2. 서언

2002년 교회에서 발간했던 '오늘'을 편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관계로 아주 사소한 단어까지도 몰라서 허둥대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written'이라는 단어를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라서 모두 사전을 찾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찍어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출판된 책 속에서는 '쓰여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두 가지가 함께 쓰이기도 하여서 편집장을 초긴장 시키는 일로 발전하였었습니다. 마침내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요.

1988년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대들에게는 현재의 한글 맞춤법이 낯설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읍니다'가 '-습니다'로 바뀐 것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바뀐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할 지라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1988년 맞춤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공부를 마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춤법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는 배워서 익히기가 극히 쉽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의 '정인지 서'에서는 한글이 배우기 쉬운 점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 안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님이 오늘날 여러가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거니와 한글을 처음으로 익히는 외국인들의 경험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가장 공이 큰 사람에게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대왕상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할 지라도 바르고 정확하며 아름답게 사용해야하는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므로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지만 우리말을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자랑스런 우리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문제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 3. '자장면/짜장면, 짬뽕/잠뽕, 게놈/지놈, 퍼센트/프로' 어떤 것이 맞춤법에 맞는 말일까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단어 중의 하나가 '자장면'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읽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장면'은 중국으로부터 그 음식이 들어오면서 이름도 함께 들어온 외래어로 '컴퓨터(computer), 라디오(radio), 버스(bus)' 등과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 물론 '자장면'의 경우는 완전히 우리 음식처럼 되어 그 말도 우리 식으로 바꾸어 써야 할 듯 하지만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고 '자장면'의 '자장'은 원어에서 '[zhajiang]'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래어 표기법대로 적으면 '자장'이 되므로 '짜장면'이 아닌 '자장면'으로 적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장면을 두 배로 달라고 할 때에는 '자장면 곱빼기'로 적습니다. '곱빼기'와 같이 된소리로 적는 것이 '나무꾼'입니다. '-꾼, -빼기, -갈, -때기'등의 접미사는 모두 된소리로 적습니다.

음식 이름인 '짬뽕'은 일본어에서 온 말로 각종 해물과 야채를 섞어서 끓인 중국 요리를 말합니다. 이 말도 외래어 표기에 따라 정확히 적는다면 '잠뽕' 이라고 해야 하지만 이제는 외래어라는 인식이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고유어화한 것으로 여겨서 소리나는 대로 '짬뽕'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한데 섞음, 뒤섞기'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뒤섞기'로 순화하여 써야 할 것입니다.

'자장면'과 반대의 논란이 일고 있는 외래어가 '게놈'입니다. '게놈'은 영어식 표기인 '지놈'이 알려지기 전에 들어온 독일식 표기법으로 연구소, 정부 기관 및 학술 기관에서 먼저 사용되고 사전에 등재되었기에 '게놈'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외래어 표기의 또 다른 예로 '**퍼센트**'와 '**프로**'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의미이지요. '퍼센트'는 영어의 'percent'에서 온 말이고, '프로'는 네덜란드어의 'procent'에서 변한 말입니다. '퍼센트'와 '프로'는 모두 잘 쓰는 말이므로, 어느 하나를 비표준어로 하기 어려웠기에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는 '2퍼센트'로 읽을 수도 있고, '2프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 4. 사이시옷의 표기법은?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나 말할 때 된소리로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이시옷은 된소리 경향을 높이는 것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이시옷의 용례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단어 전체가 한자어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한 후, 전체가 한자어라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뒷간(退間)**, **횃수(回數)**, **차간(車間)** 외에는 'ㅅ'을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焦點, 次數, 個數, 內科는 초점, 차수, 개수, 내과로 쓰고 읽어야 합니다.

둘째, 고유어와 고유어로 된 합성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로 된 경우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사이시옷 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모깃불**, **아랫집**, **빗물**, **나뭇잎**, **갯잎**, **횃집**, **전셋집**, **수돗물** 같은 것들입니다.

#### 5. 모음조화는 어디로?

한글에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같이 쓰인다는 모음조화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음조화의 틀이 많이 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깡충깡충' 대신 '**깡충깡충**'이 표준말의 대열에 참여했고 '쌍둥이' 대신 '**쌍둥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ㅂ'불규칙 동사에서의 모음조화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전에는 양성모음끼리 조화를 이루어서 '놀라와요, 아름다와요, 가까와요' 등으로 써왔지만 현재는 어간이 두 음절 이상인 동사는 모두 '-워요'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 '굽다'의 경우 어간이 한 음절이므로 '**고와요**'로 예전과 같지만 '놀랍다, 아름답다, 가깝다' 등의 동사는 어간이 두 음절 이상이므로 '**놀라워요, 아름다워요, 가까워요**'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 6. **설것이/설거지, 아무튼/아무든, 어떠든/어떻든, 얹히고 얹히다/얹히고 설키다, 반드시/반듯이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맞춤법은 소리나는 대로 써야 한다는 규칙과 어원의 근원을 따라서 적어야 한다는 규칙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설거지'와 '아무튼'의 경우 '설것다'나 '아무다'라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거지'와 '아무튼'이라고 적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동사가 있으므로 '어떻든'이 맞지요. '얹히고 설키다'의 경우는 '얹다'라는 동사는 있어도 '설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얹히고 설키다'로 적습니다. '반드시'와 '반듯이'의 경우는 둘 다 맞는데 문맥에 따라 구별하여 적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예는 많이 있습니다. '사라지다'의 경우 '살아지다'의 뜻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드러나다'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앞으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어원의 유무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7. **'전화할게/ 전화할게, 내가 질소냐?/질소냐?' 의 경우에는?**

'ㄹ'로 시작하는 어미 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는 규칙에 의거하여 '전화할게, 도착했을걸' 등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의문문의 경우에는 된소리를 그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갈까?, 내가 질소냐?, 이 일을 어찌할꼬?' 등입니다.

이와 함께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오'로 쓰고 연결어미는 '-요'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 8. **기타 맞춤법은 어떤지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숫소'가 아니라 '수소'라고 씁니다. 화학에서 나오는 수소와 혼동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ㅂ'과 'ㅎ'소리가 덧붙여서 '암뻘지, 암캐, 수강아지, 수뻘지, 수탕나귀, 수평아리' 등으로 표기합니다. '수평아리'의 경우에는 무척 생소해 보입니다.

지난 날에는 '돌'은 생일을 '뫼'은 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는데 이제는 모두 '돌'로 씁니다. '무우' 대신에 '무'로 '상치'는 '상추'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남비'는 '냄비'로 통일하였고 '성경 귀절' 대신 '성경 구절'로 씁니다. '소고기'와 '쇠고기'는 복수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쇠고기는 '소의 고기'가 줄어든 형태로 오랜 동안 자연스럽게 불려 왔습니다.

## 9. 글을 마치며

이미 10여 년도 전에 개정된 것이지만 한번 훑어보니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것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배워서 사용하랴니요? 다시 배우는 것이 새로 익히는 것 보다 더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맞춤법을 평가할 때에는 두가지 측면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쓰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읽는 면입니다. 아마 마음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써야하는 측면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보면 쓰는 생활보다는 읽는 생활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는 해도 글을 쓰거나 기도문을 작성하는 일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맞춤법은 읽기에 능률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맞춤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9:4)”와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랄 수 없느니라”를 비교해 보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 맞춤법은 문장을 이해하기에 어렵고 불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맞춤법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사전을 사용하듯이 국어사전도 자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문제의 답은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모두 앞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 10.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 웹에서 발견한 시

마지막으로 웹을 뒤지다가 발견한 한글에 관한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서 우리 한글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차 옆 좌석에 앉은 외국인,  
내 책을 힐끔힐끔 보며  
우리 문자가 건축 같다, 조형적이다, 아름답다며  
모음과 자음을 묻는다.

기억 니은...발음과 함께 자모음을 써주었더니,  
제 나라 발음 토를 달아가며 익히고 재밌어한다.  
그리고는 한참만에  
해피뉴이어,를 뭐라 하느냐 또 묻는다.

즐거운 숙제를 만난 듯

글자 하나 씩 열심히 쓰고 지우고 연습하더니,  
기차에서 내릴 즈음  
종이에 새해 인사를 써서 내게 건네 주었다.  
새해 복 '만이' 받으세요.

놀라워라.  
우리 글 쉽다더니, 우리 문자 과학적이라는 말이 이거였구나.  
그 옛날 세종대왕님은  
모든 백성이 문자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쉽게 만드셨구나.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임금의 마음이  
높기 보다 애뜻해서

기차가 덜컹대며 가는 동안  
마음도 따라 덜컹덜컹 춤을 추었다.